

도, '농업·기업 연계강화 사업' 공고

식품기업-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 활성화... 안정적 판로확보·소득 증대 도모 목적

공모 분야...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10개소·'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 5개소

전라북도는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2022년 농업과 식품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을 공고하고 3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과 식품기업 간 연계 강화는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가공용 농산물 납품·구매계약으로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해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10개소)'과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5개소)'이다. 지원 대상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의 경우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

하는 생산자단체다.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분야는 생산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업체다.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협 등)에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품질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업체에는 ▲신제품 개발, ▲관측·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개소 기준으로 생산자

단체에는 2,000~4,000만 원, 식품기업에는 2,000만원 정도다.

도는 공모 접수 후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3월 말에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총 15개소 생산자단체 10, 식품기업 5를 선정·지원해 745농가가 참여하고, 2,000여톤의 농산물을 납품·구매 하는 상생협력 성과를 거뒀다.

고창 이엠명품농장 직박ուն은 맛, 식감 등 개선을 위한 신품종 개발을 위해 시

범포 조성 등 20t를 계약재배해 머스트콘 식품기업에 평균 182톤을 공급했다.

정음 푸리명품화사삼단은 아이쿱생협과 푸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9농가에서 생산한 푸리 430톤을 공급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주)썬즈버킷 식품기업은 '깨' 작목인과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23농가에서 생산한 깨 7톤을 수매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는 판매 걱정 없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식품기업은 품질 좋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1석 2조의 상생협력 사업이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식품기업 상생협력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재난의료협의체' 발족

재난거점병원·도·소방·경찰·시군·응급의료센터 등 참여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현장의료 대응능력 강화

전북도는 지난 18일 도청 세미나실에서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재난의료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도 재난의료협의체는 재난 발생 시 재난거점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도 보건의료과, 소방본부, 경찰청, 시군 보건소, 응급의료센터, 언론 등 유관기관 간 일사단란한 협업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올해 제1회 전라북도 재난의료 종합훈련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각 기관 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전략을 공유하고 협의했다.

현재 도내에는 재난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거점병원에 재난응급의료대응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이 있으며, 재난의료지원차량(전북대학교병원 1대, 원광대학교병원 1대)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또한, 재난의료 무선통신망(PS-LTE)이 전국 단일망으로 구축되어 경찰·소방·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군 보건소도 신속대응반을 편성해 초기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정우 도 보건의료과장은 "지자체와 소방, 경찰, 재난거점병원 등과 노력해 전북에 맞는 재난대응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양충모새만금개발청장, 시화지구 방문

새만금 사업 추진협력 방안 논의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18일 경기도 시화지구를 방문해 박도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 시화지역본부장 등과 만나 새만금 사업 발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청장은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미래지향형 수변도시로 조성 중인 시화MTV* 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시화호를 세계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첨단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킨 그간의 변화가 놀랍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여건과 개발목표가 비슷한 시화지구 개발 경험이 새만금 개발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도선 시화지역본부장은 "K-water의 그간의 개발 노하우를 새만금청과 공유하는 등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유호상 기자



올해 노인 6만5천여명에 일자리 제공

도, 총 2천343억 투입... 작년 대비 309억 원 증액
노후 소득 보충·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도모

전북도는 지난해 대비 309억 증액한 2343억(국비 1,172억, 지방비 1,171)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노인 6만5,442명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만5,074명이 참여한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대상으로

은퇴 노인의 경력을 살리며 도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817명이 참여한다.

민간형은 60세 이상 대상 일일 기간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3,551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는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활동한다. 유형에 따라 공공형 사업 참여자는 월 30시간 활동으로 27만 원,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는 월 60시간 활동으로 최대 71만 원 그리고 민간형 참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청년정책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예비 청년마일 만들기·청년생생아이디어 발굴·정책화 지원 등 신규 추진

전라북도는 각종 청년정책에 대하여 지역 청년들이 정책을 활용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청년과의 소통 및 정책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정책을 지역 청년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북청년허브센터를 포함한 중간 지원조직과 활발히 협업하고,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지난 20년 5

월에 개소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온·오프라인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리집과 청년에게 익숙한 SNS 등을 통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면 매주 관련 자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청년소통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미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개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

반 또한 확대한다.

작년 12월에는 전북도 153개 위원회 중 청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48개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하였다. 특히,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계획이다.

또한, 청년이 직접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 활동을 하는 청년정책포럼단은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 청년협의체 기구로 기존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청년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예비 청년마일 만들기와 청년과 시·군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청년생생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화 지원사업 등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은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전북의 주역인 청년들과 소통하고, 직접 정책에 참여하여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며 "꿈과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과 항상 함께하는 전북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소방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하세요"

6월 30일까지 접수

전북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관리 자율 책임 유도를 위한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관리우수업소는 안전 관리 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고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같은 기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우수업소 인정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 소방서 민원실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도 소방본부는 현장 확인 등 심사 절차를 통해 안전 관리 상태가 우수한 영업장을 선정, 9월 16일 우수업소로 공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업소는 인종 기간(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 교육 면제 및 도지사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382호

분묘개장 공고(2차)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환경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외 1선' 벌립 토지내 분묘를 개장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장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소재지	지번	분묘기수	지목	토지소유자
전북 남원시 산곡동	산13	3	임야	남원시
전북 남원시 노암동	566-15	2	임야	남원시
2. 개장시유 : 환경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외 1선
3. 공고기간 : 2022. 2. 21 ~ 2022. 5. 21(3개월)
4. 개장장소 : 남원시 산곡동 산13, 남원시 노암동 566-15
5. 안치기간 : 무연유골 안치후 10년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임의 개장
7. 신고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063-620-6476)
 - * 매장자와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족보, 호적 및 제적등본 등) 등을 준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 상기 공고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개장하겠으며, 추가 발생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간주합니다.

2022년 2월 21일 남원시청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